|  |
| --- |
|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
| Politics of street and production of representation in Liberation Period |
| 천정환(Cheon Jung-hwan) |

[상허학회](http://www.dbpia.co.kr/view/pub_view.asp?pubid=10249), [상허학보](http://www.dbpia.co.kr/view/p_view.asp?pid=781), [제26집](http://www.dbpia.co.kr/view/is_view.asp?isid=64966) 2009.6, page(s): 55-101

이 글은 해방기의 거리의 정치와 그것이 생산한 표상에 대해 논한 글이다. ‘거리의 정치’는 정당정치ㆍ의회정치와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방기에 ‘거리의 정치’는 ‘정상’이었으며 정치의 전체였다. 또한 그것은 ‘혁명의 정치’와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시작된 거리의 정치는 민족해방과 더불어 인간해방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혁명이나 무정부상태가 수반하는 카니발의 양상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몸의 해방’과 원초적인 인간 회복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 글은 특히 1945년 가을 이후부터 1946년 봄까지의 시기에 특히 주목하고 거리의 정치에서 산출된 표상에 대해 논했다. 남북한을 지배하는 민족의 표상과 좌우의 표상은 투쟁을 통해서, 해방기의 거리에서 형성되었다. 남북한의 애국가와 태극기 및 적기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어린 좌우익의 상징들이 그 예이다.

  This article argues politics of street and its production of representation in Liberation Period in Korea. Politics of street is the whole of the politics in Liberation Period. It meaned "politics of revolution" and mobilization as well. The politics of street which had started in 1945 August 15th, meaned not only liberation of "national" but human liberation, it was kind of revolution or carnival. That means liberation of "human bodies" and "human recovery" which was instinct. This article focuses on especially from 1945 autumn to 1946 spring, when representation formed which governs South and North Korea. National represen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ight and the left produced from struggles in politics of street. The National Anthem of South and North Korea, were formed representation of the left and right with hatred, as well as Taegukki and Cheokkiga(적기가).